

‘20대 국회’ 호남 중진에 듣는다

⑦ 이정현(새누리당·순천)

“호남정치 활발하게 경쟁해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은 20대 총선에서도 지역장벽을 깨는 이변을 재현했다. 지난 2014년 7·30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데 이어 또다시 야권의 텃밭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지역구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새누리당 대표 도전할 것 순천에 국립의대 유치 노력

망국적 지역할거 붕괴

순천시민 선거혁명서 비롯

그는 광주살레시오고와 동국대 정의과를 졸업하고 민주정의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뛰어 들었다. 제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의 입’으로 불릴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광주 서구에 도전해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지역주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후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지내다가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이 의원에게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보다 훨씬 어려웠다. 일단 고향 곡성군이 기존 선거구에서 이탈했다. 또 당 상황도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홀로 유권자에게 ‘바닥으로 바닥으로’ 직접 다가간 선거운동으로 경쟁후보를 제압했다.

이제 3선이 된 이 의원의 각오는 남다르다. 일단 당의 총선 패배에 스스로 반성하며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다. 특히 당 대표직에 도전장을 던지며 정치인생에 새로운 분기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한 소감은.

▲고맙고 감사함에 자꾸 눈물이 난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순천발전으로 보답하겠다. 20대 총선에서 대구·부산·경남·울산에서 망국적 지역할거 구도가 붕괴된 것은 지난 7·30 보궐선거 때 순천시민이 시작한 선거혁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쉽지 않은 선거였는데 승리 원인은.

▲첫째는 순천시민의 높은 주권 의식이었고, 둘째는 진심이 통했다는 점이다. 보궐선거 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 서울과 여수를 오가는 비행기를 무려 241번 탔다. 지구 두 바퀴를 도는 거리를 지역민들을 찾아다녔다. 마을회관에서 자고 광장토크를 하고 민원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고 어느 정도 신뢰를 주신 것 같다.

-총선 결과를 평가·분석한다면.

▲한마디로 국민은 이번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정치인을 확 바꾸려는 엄청난 명령을 내렸다. 새누리

당은 리모델링만 가지고는 총선 민의를 다 반영할 수 없다. 총선에서 국민은 완전 재건축 수준의 대변혁을 요구했다. 야당이 잘해서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다. 정치권 전체가 변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총선 패배 원인으로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를 지적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그동안 새누리당 안중에 국민은 없었다. 몇 번의 선거 승리도 새누리당의 오만과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오직 대권욕심만 있었고 리더와 리더십이 실종됐다. 집권당의 완전 패배 책임은 구성원 전체에 있다. 당연히 청와대와 친박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당 총선 패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성찰과 반성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이 있는데.

▲민의를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했다. 어떻게 실천하는지 좀 더 지켜보자.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변

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와 타협의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20대 국회 활동에서는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국회의원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순천시민을 위해 의대와 병원 유치, 광양만권 활성화,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 등에 주력하고 청년일자리 확충에 헌신의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의대 유치 공약과 관련 논란이 있었다. 향후 공약 실현 방안은.

▲유치를 추진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부속병원은 기존 의대와 다르다. 소위 의료사관학교로 전액 국비로 의사를 양성한 후 10년 이상 공공의료 분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여야가 같은 법안을 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꼭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디에 설치하느냐만 남았다. 16개 시도 가운데 의대·부속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가 전남이다. 두 야당이 순천 유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당 대표에 도전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선거 전 출마 선언 때부터 3선 하면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출신 새누리당 대표가 그 자체가 지역구도의 붕괴와 화합이고 정치개혁이라고 본다. 국회와 새누리당 개혁, 지방자치 개혁을 포함해 6가지 꼭 바꾸고 싶은 정치권의 과제가 있다. 반드시 실현하고 싶다.

-탈당 의원들 복당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복당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었고 본인이 복당을 원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을 당선시킨 민의에 대한 존중이다. 판단 착오였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든, 그분들을 당에서 떠나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민의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게 선거 결과로 입증됐다.

-바람직한 호남정치의 방향은.

▲경쟁이다. 지역정치에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민들이 정치인에게 대접받고 그리고 우리 지역정치인들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화재로 삶 터전 잃은 영세민에 주택 공급

광양서 ‘119 희망주택’ 입주식 ... 서민배려 시책 주목

전남도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영세민에게 주택을 지어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신협 이용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 인하 등 전남도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서민 배려 시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26일 오후 광양시 광양읍에서는 이낙연 전남지사, 정현복 광양시장, 이용재 전남도의원, 이형철 소방본부장, 위수미 자활센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9 희망주택’ 입주식을 가졌다.

‘119 희망주택’ 사업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

로 주택을 지어주는 시책이다. 이날 119 희망주택 1호 주인공은 박순심(81) 할머니다. 혼자 살고 있는 박 할머니는 지난 2월 아궁이 잔불 처리를 잘못해 33㎡집이 전소돼 인근에서 월세를 내고 근근이 살아왔다.

전남도민,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이 2500만원 가량을 모금하고, 삼덕기업, 전남광역자활센터, 광양읍사무소 등의 물품 등을 기부해 모두 4000만원을 지어 방, 거실(주방 겸용), 화장실, 창고 등으로 구성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공했다.

전남도는 오는 5월에도 완도에서 거주

하는 황동관(73)씨 부부를 위한 119 희망주택 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황씨 부부는 지난해 1월 60㎡ 면적의 집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박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인근 주택에서 월세를 거주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입주식에서 “이웃의 불행을 지나치지 않고 희망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모금운동에 참여해 주신 도민과 참여 기관·단체에 감사드립니다”며 “그들진 이웃을 찾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 배려시책을 발굴·시행해 온정이 넘치는 도정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2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연설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경북도 의회의장 교차 방문 본회의장 연설

전남도의회 의장과 경북도의회 의장이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교차 방문해 상대 본회의장에서 연설한다. 이와 관련,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2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했고,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은 오는 6월 24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한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연설에서 “지역주의는 정치인과 언론이 만들어낸 감정과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현대사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나라를 발전시켜온 양 지역이 화합과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양 도의회 의원들은 6월 전남서 ‘상생협력 화합대회’도 연다. /이종행기자 golee@

전남도 ‘소프트웨어 상용화사업’ 19억 확보

3개 과제 선정

전남도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모한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사업’에 3개 과제가 선정돼 국비 19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26일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에 전국 각 시도가 44개 과제를 응모, 이중 25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전남도는 응모한 3개 과제 모두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제1과제는 12억원을 투입해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버섯의 생육환경정보를 수집·분석해 병에충 예방 및 최적 생육환경을 유지·개발하는 것으로, (주)다울 등 지역업체 3곳이 참여한다.

또 ‘조선협력업체 의장품 제작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안벽의장 공정관리시스템 개발사업’ 등도 지역업체들이 맡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들 과제를 통해 조선 협력업체들의 설계·제작공정에서의 경비 절감, 작업 능력 향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과제와 제3과제에는 각각 8억8000만원과 16억6440만원이 투입된다.

강요석 전남도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라식·라섹의 단점은 최소화! 장점은 극대화 한 시력교정수술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Advertisement for 'Lawyer's Hope' (법인이회생) featuring a blue background with white text and a list of services provided by the law firm.